SECTOR
UPDATE

2026. 4. 1.

EV/모빌리티팀

장정훈 Senior Analyst
jhooni.chang@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2차전지 (OVERWEIGHT)

시대 52 – 양극재 판가 2분기 급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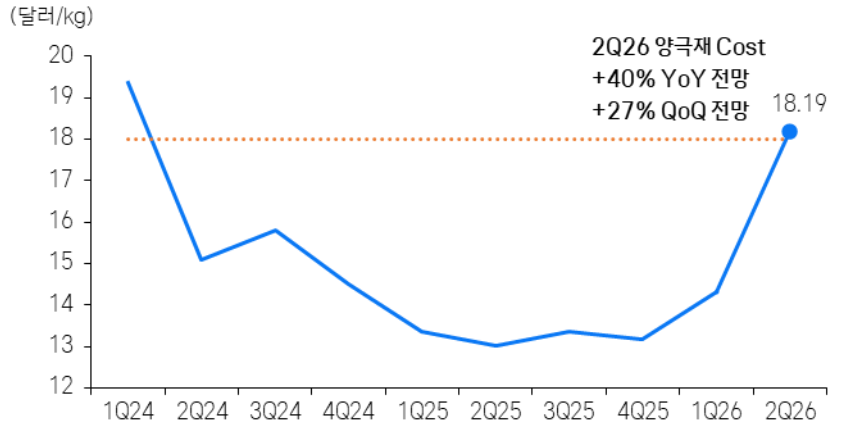
- 2분기 양극재 판가, 전년비 40% 급등 가능성
- 리튬, 코발트 등 메탈 가격 강세가 이어지며 판가 상승을 지속 압박하는 상황.
- 2월 양극재 수출은 전년비 감소, 수요 회복 전망은 아직 이름

WHAT'S THE STORY?

들어가는 글: 시대(시장과의 대화) 쉰 두 번째 이야기는 한동안 잊고 지내던 양극재 판가 전망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최근 이란 전쟁 사태가 길어지면서 제조 공급망상의 수급 불안 요인과 가격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해서 움직인 배터리 원재료인 주요 메탈들의 가격 강세로 인해 이미 양극재 판가를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만약 전방 수요가 견고한 상황이었다면 펀더멘털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이겠으나 시장에서 들리는 소식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한 업계 상황은 후행적이긴 하나 양극재 수출 통계에서 확인됩니다.

2분기 양극재 판가 전년비 40% 급등 예상: 우리의 양극재(NCM8 기준) cost 추정 모델에 따르면 2분기 가격이 전년비 40%(전분기 대비로는 +27%) 상승한 18달러로 추정됨. 이는 202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양극재 판가(수출 가격)는 메탈 재료가에 더해 가공비와 마진이 포함되기 때문에 Cost에 비해 10달러 내외의 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극재 판가는 2월 기준 23.8달러 수준에서 2분기에는 약 28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짐. 양극재 cost 증가율이 40% 넘었던 경우는 2023년 1분기 이후 처음.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리튬, 니켈, 코발트 모두 단기 급등하면서 시차를 두고 판가에 반영되기 때문. 당사 추정 모델에 따르면 1분기 양극재 판가는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한 데 이어 2분기에는 40% 상승 가능성이 높아짐.

양극재 판가(Cost 기준): 2분기, +40% YoY (+27% QoQ)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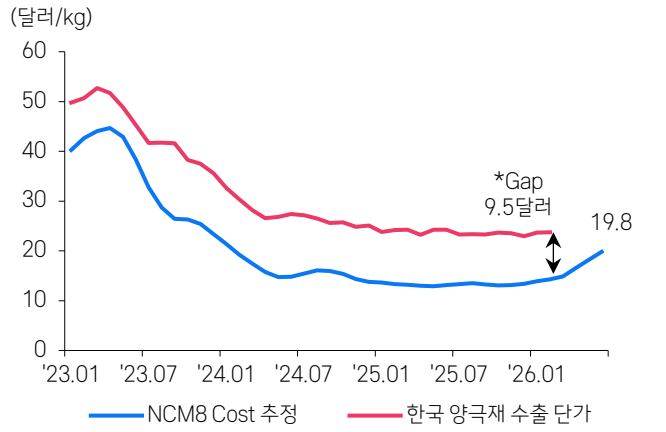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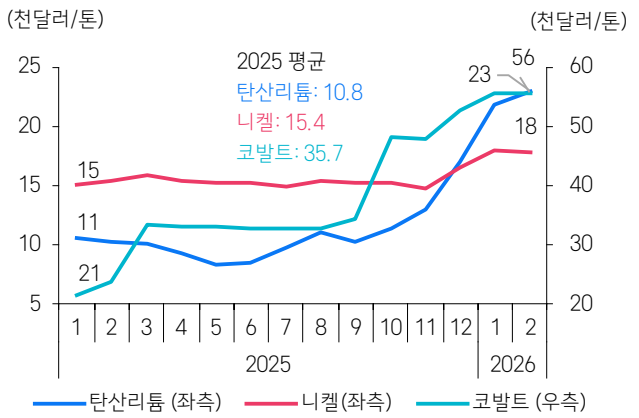
메탈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환경 요인들: 최근 메탈 가격 상승은 정책, 수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 리튬 가격은 지난해 1월 kg당 10달러 수준에서 시작되었으나 2월까지 23달러대로 급등함. 지난해 중국 정부의 ESS 확대 정책과 유럽 EV/ESS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한 중국 업체들의 단기 수요 증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낮은 시장 가격에 가동할 수 있는 리튬 광산은 여유가 없었던 데다, 리튬 재고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급이 타이트했기 때문. 올 2월 들어서는 리튬 생산량 기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짐바브웨 정부가 리튬 농축액 수출을 중단하면서 가격 급등세를 다시 촉발하는 상황. 코발트의 경우는 지난해 1월 kg당 21달러 수준이었으나 코발트 생산 세계 1위인 콩고민주공화국이 엄격한 수출 쿼터를 시행하면서 올 2월 기준 가격은 56달러 선으로 2.6배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음. 니켈의 경우는 지난해 내내 kg당 15달러대에서 횡보했었음.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니켈 생산량 감축 계획을 내놓은 데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배터리 및 스테인리스강 제조를 위한 중국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2월 기준 18달러대로 상승함.

양극재 월별 수출 단가와 NCM8 Cost



참고: *2월 양극재 수출단가와 당사 추정 NCM8 Cost 차이
자료: BN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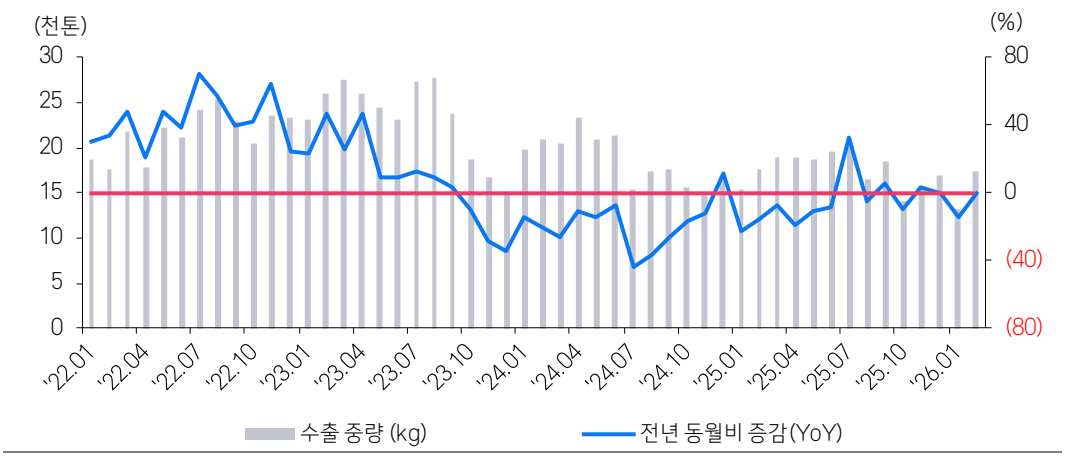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메탈 가격 상승



자료: BNEF

양극재업체들의 가동률 회복은 아직: 한편, 양극재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월 수출 물량은 17백만 톤으로 집계됨. 1월(13백만 톤)에 비해선 33% 늘어난 것이나 전년 동월비 0.7% 줄어든 것이고 동월 기준으로는 여전히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이는 한국 양극재업체들의 주요 전방 시장인 미국 전기차 시장 판매 부진과 주요 전기차 OEM들의 가동률 부진 등에 따른 것. 업계에서는 2분기 중순까지는 수요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양극재업체들의 가동률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

양극재 월별 수출 중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2차전지 산업 시사점: 메탈 시세 변동과 양극재 판가가 연동되는 가격 구조를 감안하면 2분기 양극재업체들의 판가 환경은 실적 개선에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생산캐파를 실 수요 대비 크게 확대한 상황에서 낮은 가동률로 마진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판가 변화만 가지고 양극재업황이 긍정적으로 돌아선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움. 업체별로 최종 전기차 OEM 고객과 지역별 비중이 상이한 데 따른 온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투자 관점에서 보면 2분기 내 미국 전기차 수요 회복 여부 또는 미국내 셀 고객사의 가동률 회복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